

# 농민연합 주최 “농협사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소식

새로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27일 치러진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역대 농협중앙회장들이 비리로 구속되거나 중도하차하여 그 어느 때보다 '농협개혁'을 요구하는 안팎의 요구가 거세다. 역대 민선 농협중앙회장이 잇달아 구속·구금되어 농협중앙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불신이 깔려있다.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으로부터 존경받는 농협중앙회장이 선출되어 작금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농민으로부터 소비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고 농업을 회생시킬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채,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신용사업에 주력하여 중앙회 몸집 불리기에 급급하며, 한미FTA 추종,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농민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한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12월 13일(목) 오후 2시~6시에 농민연합 주최로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농협사태,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전 농협중앙회장 정대근 씨의 원심 확정에 따른 회장직 박탈로 인해 치러지는 12월 27일의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범 농업계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개혁의 방향과 과제, 차기

농협중앙회장의 주요 역할 등에 관한 의견을 집약해내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 # 토론회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가?

이현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협의 변화와 혁신은 핵심은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 구조를 보면 인사, 예산 등 핵심 권력이 중앙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견제 없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표이사의 지명권, 간부 직원의 인사조정권이란 지분을 통해 대표이사와 간부 직원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납품업자의 선정, 매장 입점사업자 선정, 대형대출의 적정성 평가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적정수의 농민대표와 사외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집행부를 지배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업대표는 소속직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경영실적으로 매년 이사회의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배와 집행'이 분리되면, 조직 운영이 투명해지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용이해 진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사업부문은 국제경쟁력을 갖는 별도의 경영체가 되어야 하며, 그 경영체는 농민이 소유하고, 그 이익은 '농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두어 복수의 대표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 중에서 대표이사 및 감사를 선임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중앙회를 지배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농민대표성 및 투명성과 도덕성 강화 ▲도지역본부장은 조합장들이 선출하고, 수익을 중앙회와 일정비율 배분하는 등 지역본부의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분권화와 민주화 실현 등을 꼽았다.

## #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한농연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일 성명서를 통해 '거대공룡'을 '농민조합원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매년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정치권과의 유착, 불법대출 사건, 친인척 특혜, 험값 처분 의혹이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위기사항을 제대로 인식하고 탈(脫) 정치화하여 농협중앙회의 자기 개혁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개방경쟁체계에 돌입한 상황에서 도시민 예금 유치, 금고 방어, 정책자금 지원 창구, 회원조합 자금 지원 및 배분 등 되풀이 되는 듯한 기존 사업방식과 체제를 과감하게 바꿀수 있는 개혁이 요구된다. 더불어 출세지향적인 후보를 배척하고 철학과 역량, 농민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본위의 모습이 필요하다.

한농연이 강조하는 것은 ▲내부 감사시스템 확립을 통한 투명한 운영구조를 확립 ▲지배구조를 개선을 통한 농민대표성 강화 ▲4년 단임제 실시 및 도지역본부장을 조합장들이 선출 ▲중앙회 사업의 회원조합 이관과 회원조합 중심의 경제 사업 등이다.

19일 마감된 농협중앙회장 선거 입후보자 마감결과 모두 5명의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다. 김병원(전남 남평), 박준식(서울 관악) 신영출(경기 구리), 최덕규(경남 가야) 최원병(경북 안강) 조합장 등이다. 농민들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통해 경제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농민중심의 중앙회장을 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